

성악 초등부 김영지 초당대 교수

발성·호흡 성숙...과장된 동작 아쉬워

아주 좋은 음을 소유하고 끼와 음악성이 많아서 미래가 기대되는 학생들이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안정된 발성과 호흡법으로 기량이 좋았다.



특히 3,4학년에서는 무대에서 당당한 모습과 집중해서 부르는 자세가 어린 학생들이라 믿기 어려웠다. 가장 치열한 경연이었고 심사위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학생들이 많았다. 1,2학년은 어리지만 자연스러운 표정과 우렁찬 소리를 내며 충분히 실력을 발휘했으나, 보다 음성, 박자, 발음이 정확하게 다듬어 진다면 더 좋은 노래가 될 것이다. 5,6학년은 사춘기에 접어들어 목소리에 조절과 안정감이 어려울 듯 싶었는데 비교적 깨끗하고 좋은 울림이었다.

과장된 표정과 호흡, 손 동작은 아쉬움을 보였다.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레퍼토리 보다는 각자의 소리와 감성에 맞는 다양한 곡 선정이 중요할 것 같다.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계속되는 발전을 기대해본다.

피아노 초등부 선수정 서울대 출강

같은 곡 경연자마다 다른 해석 돋보여

올해 경연은 어렵고 빠른 곡만을 지향하는 다른 콩쿠르들과는 달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가데믹하고 적절한 수준의 지정곡으로 동기 부여와 자신감, 그리고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자리였다.



음악에서 중요한 다양한 리듬과 화성적 변화, 강약의 표현과 왼손 반주와 오른손의 멜로디의 밸런스 등 경연자들의 각자 다른 해석에 따른 연주를 보며 예향의 밝은 미래를 느꼈다.

다만, 왼손이 너무 커서 오른손 멜로디가 묻혀버린다는 지적, 앞뒤 학생이 같은 곡을 연주할 때 본인의 템포를 생각하지 않고 앞 사람의 템포로 시작 하는 점 등은 아쉬웠다.

또 너무 빨리만 치려고 해서 중간의 어려운 부분에 이르르면 갑자기 느려진다거나 하는 경우는 작곡자의 의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야 한다.

콩쿠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순위가 매겨지지만 비합성자들도 훌륭한 연주였고 응원을 보낸다.

발레 박준희 조선대 교수

초등 부문 실력 약진 바람직

제62회 호남예술제 발레부문 심사를 끝내고 '호남의 자존심' 발레가 점점 다시 초등부부터 발전해가는 모습에 흐뭇한 마음이였다.



예쁜 티를 입고 공주 같은 모습의 초등부 학생들은 전사들 같아 행복했고, 많은 참가 작품에 기뻐했다.

무엇보다 발레는 쉽게 할 수 없는 무용 분야이기에 어릴 때부터 해야만 하는 부담감이 있다. 하지만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인내와 끈기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힘든 분야이지만 어린 학생들이 잘해줬다.

무엇보다 어린 남자 무용수 기량은 매우 뛰어났다.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반면 여자 어린 무용수들은 너무 어려운 음악과 기교에 부담감을 느꼈다. 이해할 수 있는 기교와 느낌을 자신있게 표현할 수만 있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호남예술제 발레부문이 중·고생보다는 초등부 작품으로 자리잡아가는 모습이 발레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자랑스럽다.

실용음악 배창희 남부대 교수

통기타·일렉기타 대중음악 미래 보여

음악 수준이 지난 대회에 비해 나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었다. 심사는 각 학년에 따른 경연작품이 난이도에 맞게 준비했는가, 연주 기량은 좋았는가, 표현력은 좋았는가,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을 얼마나 잘 했는가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먼저 초등부 클래식기타 경연은 전년 도에 비해 참여인원은 적었으나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은 아주 좋았다. 이어서 중등부 통기타 부문에 참여한 학생은 성인들도 해 내기 어려운 높은 실력을 자랑하고 있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고등부 일렉기타 또한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단지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보컬의 참가자 수가 눈에 보이게 줄었다는 것이다. 물론 참가자의 수준은 높았었다.

요즘 방송매체의 연예프로그램을 보면 나이의 구분이 없는 것 같다. 즉, 미래가 아닌 현재의 대중음악을 이끌어갈 실용음악 인재를 발굴과 육성하는데 호남예술제가 큰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성악 중·고등부 강숙자 전남대 교수

목 관리 부족했던 건 '욕의 티'

연주자에 맞는 곡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무조건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곡을 선택하는 것 보다는 본인의 영역에 맞고, 부르기 편안한 곡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성악은 타고난 소질도 중요하지만 음성, 박자, 발음을 연습하고 노력해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다. 올해는 미세면지의 영향 때문인지 가끔 목소리가 갈라지고 힘들어 하는 참가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 많이 안타까웠다. 연주 1~2주 전부터는 자기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것부터가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는 요소들 중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고등부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연주에 임했다. 하지만 율절가곡에서 1절을 생각하고 2절만 부른다는 오페라 아리아에서는 레지타티보와 아리아의 전반부를 생각하고 후반만 부르는 참가자들이 더러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곡을 온전하게 처음부터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

피아노 중·고등부 신수경 전남대 교수

화려한 곡보다 리듬·감정표현 신경써야

콩쿠르에 참가할 때 선곡을 잘 해야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고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베토벤 소나타는 기교적으로나 음악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어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우열의 차이가 잘 드러난다.

실력 향상과 입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화려한 곡보다는 베토벤 소나타를 단정하고 음악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심사위원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리듬과 감정표현은 기본적인 심사기준이다. 빠른 느린 리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훈련해야 한다.

일정한 흐름을 '노래하며' 연습하는 습관을 기르면 마구잡이 나 기계적인 연주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연주자가 스스로 감동하지 않으면 청중을 감동시킬 수 없다.

단정할 옷차림은 기본적인 예의이므로 복장에도 신경을 쓰으면 한다.

국악 이승곤 전남도립대 교수

정확한 음정·표현력 기대 이상

공연장에 도착하니 옛날 학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반백년 역사를 가진 호남예술제에 처음으로 심사를 맡게 된 만큼 큰 기대감을 주기 충분했다.



호남예술제 관계자에게 "오중 전통부문 참가자가 많이 줄었다"는 걱정스런 이야기를 듣고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에 들어갔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다수의 대회 참가자들은 생각보다 훌륭한 연주와 기량을 갖고 있었다. 대중음악에 쉽게 빠져들기 쉬운 학생들이 전통음악을 깊이 있게 연주하고 무대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은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됐다.

서양음악교육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전통음악을 연주할 때 정확한 음정과 표현력을 갖고 있었는데 기대 이상이었다. 앞으로 호남예술제가 방과후학교와의 연계, 퓨전 장르를 신설하는 등 전통을 보존하고 국악 기반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분야를 보강한다면, 현재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의 예술제에 거듭날 것으로 생각된다.

미술 정상섭 서양화가

독창적 소재·다양한 표현력 고무적

성장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미술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미술이라는 다양한 시각에 의해서 무지개빛 상상력을 키워 나가면서 올바른 정서적각각을 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미술대회는 전반적으로 독창적 표현이 우수한 작품이 많아 여느해보다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된 느낌이었다.

출품한 많은 학생들의 작품은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 재미있는 소재와 다양하고도 수수하게 표현한 작품들도 많았다.

작품을 고르는데 있어 심사위원들과 충분한 논의에 걸쳐 다양한 묘사나 표현의 자유로움에서 오는 창의성, 순수한 표현감각, 독특한 화면구성 등이 돋보이는 작품에 주안점을 뒀다. 아쉽게도 입상하지 못한 모든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미술이 꿈과 희망이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술교육을 위해 열심히 지도해주신 선생님과 미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 감사드리다.

관악 이철웅 연세대 교수

음악성·기교 좋았지만 기본기는 부족

유능한 인재배출의 산실인 호남예술제에 심사하게 되서 영광이었다. 관악 꿈나무들을 통해 호남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초·중·고등부의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다양한 수준의 기량을 선보인 점이 인상적이었다.

대체적으로 몇몇 학생들의 수준은 음악성이나 기교면에 있어서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었으나, 기본이 좀 더 부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연습할 때 녹음기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자기 연주를 들으며 호흡, 아티큘레이션, 소리 등 필요한 모두를 비교 분석하라.

입·퇴장곡 인사도 연주에 포함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엉거주춤 자세를 피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학부형들의 수준 있는 관람 태도가 돋보였고 광주일보 임원들의 62년간의 수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발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제가 되길 소망한다.

한국무용 박선옥 광주여대 교수

군무 작품 완성도 지난해보다 향상

발레나 현대무용, 재즈 부문은 참가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한국한국무용의 경우 참가자 수가 전년대 비 줄어든 점과 비슷하나 비전공자 참여가 늘어났고, 수준이 작년에 비해 높아졌다.



특히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해 지도된 것으로 보이는 군무 참여 학생들의 작품 완성도, 기량이 전년에 비해 좋아졌다.

단 초등생의 경우 연령대에 적절한 작품 내용과 기능이 요구된다. 지도자가 어린 학생에게 심각한 주제와 고난도 기능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춤 어렵다'는 나쁜 영향을 주기 쉽다.

중·고생은 신체조건과 어울리는 의상 및 기능이 요구된다. 대학 입시 중심의 기량 습득이 우선이다 보니, 작품 주제와 동떨어진 다소 어려운 동작의 연결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학생 기량에 맞는 작품 구성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자신감과 표현력 확대에 좋을 것이다.

또 안무할 때 음색과 높낮이 및 템포 등을 고려한 음악편집을 당부하고 싶다.

합창 윤영문 전국합창총연합회 부이사장

합창의 표본 보여줘...발음 신경썼으면

합창경연은 세 팀만이 참가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수준은 대체적으로 높았다.



특히 송원초등학교합창단의 경연곡 'Song of hope'는 수준 높은 무반주 합창곡임에도 불구하고 훈련된 발성과 잘 정돈된 소리로 좋은 합창의 표본을 보여줬다. 욕심을 부린다면 외국어이기에 발음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화순 제일초등학교의 합창은 블랜딩의 조화로운이 잘 표현됐고 김준범 편곡 '고향의 봄'은 지휘자와 단원간의 호흡을 아주 적절했다.

단, 좀 더 힘 있는 발성이 훨씬 짜임새 있는 합창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해본다.

화순 만영초등학교는 건강하고 발랄한 소리를 들려줬다. 곡 중간에 소프라노 파트가 흥분해 음정이 올라가 화음감이 아쉬움이 있었다. 아마 연습 때 보다 실력 발휘를 잘 못했으리라 짐작이 된다.

모든 합창단의 지휘 선생님들의 바톤테크닉이 수준 있었고 반주 선생님들의 실력들도 무척 높은 수준이었다.

만화·일러스트 조득필 세한대 교수

학생들 특특 튀는 상상력 감탄

작품 250여점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학생들의 놀라운 열정과 상상력을 동원한 표현력에 감탄하고, 어떤 작품은 아쉬움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만한 작품을 선택했는지, 이런 저런 생각 때문이다.



최선을 다한 작품을 심사할 때면 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심사위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수상작은 심사위원 몇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인정할만한 작품을 선택했는지, 이런 저런 생각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수상자와 비수상자의 차이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 시작되며, 심사위원의 전문적 성향에 의한 판단에 앞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구분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본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된 본 대회 수상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비수상자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

학생들의 특특 튀는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세대간 생각의 차이와 변화를 확인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다. 아울러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이지 않는 큰 배움이 되었을 것이다.

현악 양승돈 원광대 교수

테크닉보다 기량에 맞는 선곡 중요

호남예술제에서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올해도 역시 뜨거운 교육열과 음악에 대한 진지한 열정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전진난만한 초등부 1학년 학생부터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부 3학년 학생까지 모두가 진지했고 열심히 연습한 것들을 훌륭히 연주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와 격려의 응원을 보낸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 본인이 소화하기 힘든 곡들을 연주하며 힘들어하는 모습과 일부 학생들의 기본기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음을 목격하게 됐다. 학생 기량에 맞는 곡 선정과 함께 기본기가 뒷받침되어야만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한다.

학생, 학부모 또는 지도하는 선생님의 의욕이 과해서 일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멋진 음악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

현대·실용무용 이숙영 목포과학대 교수

보여주기위한 작품 구성·의상 지양을

현대무용과 실용무용 두 파트로 구분되어 열린 이번 대회는 과거에 비해 참가자의 수가 줄어든 반면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 수준의 향상됨을 엿 볼 수 있었다.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참가자들이 세련되고 화려하게 구사하는 테크닉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실력 향상은 눈에 띄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린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소질을 표현하기 위해 열정을 쏟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린 학생 자신의 정서와 연령에 어울리지 않는 제목, 테크닉과 안무구성, 의상 등은 단지 프로무용수를 흉내 내는 듯이 보여 지고 있었다. 다소 촌스럽거나 부족하다 하겠지만 학생들은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것은 실용무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육설이 난무한 영어음악에 선정적인 움직임과 의상은 연예인을 흉내 내기에 불과 하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학생에게 어울리는 작품구성과 의상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합주·중주 김농학 목포대 교수

다양한 편성의 중주팀들 눈길

이번에 실시한 합주와 중주 부문 콩쿠르에서 목도합한한 사실은 중주 부문에서 이전보다 많은 팀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합주 부문도 관현악합주 외에도 현악합주팀, 관악 합주팀등 다양한 종목으로 참여했다. 중주부문에서도 현악과 관악이 함께 어우러진 팀들 외에도 첼로로만 구성된 팀, 플루트로만 구성된 팀, 색소폰으로 구성된 팀, 마립마 타악기로만 구성된 팀 등 다양한 편성의 팀들이 참여했다.

내용면에서는 학생 수준 이상으로 월등한 기량으로 연주를 해냈다. 지도 선생님들의 노고와 학생들의 피나는 연습 산물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정도 어린 학생들의 연주도 그들의 수준에 맞는 곡목을 선정해 훌륭하게 소화를 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싶다.

앞으로 합주나 중주 팀들이 학교 내에서 잘 활성화돼서 학생 정서발달이나 학생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좋은 기폭제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작문 고재중 시인

시·산문, 장래 좋은 작가로 클 재목

문학 부문은 예전보다 참가자 수는 줄었지만 작품 수준은 전반적으로 나아졌다. 시나 산문이 상투적이고 관념적인 감정의 토로에서 벗어나, 삶의 구체성 속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산문 대상에 뽑힌 '5월'이라는 글은 오랜 세월 속에서 스러져가고 잊혀져가는 옛 물건을 통해 "물건마다 얼굴이 있다"는 놀라운 생각을 할머니의 삶에 유추시키는 것이 경이로웠다. 문장 또한 거친 곳 하나 없이 또박또박 정확한 표현을 해낸 솜씨가 가히 칭찬할만했다.

시 대상으로 뽑힌 두 학생도 장래 좋은 시인으로 클 재목들이다. 시에서 은유법과 자기만의 해석적 진술은 전문시인도 늘 낭패를 보는 표현법인데, 위 두 학생은 이걸 유려하게 해내고 있다.

할머니의 휘어진 뒷모습을 보고 "나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다"라거나 "노인은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인생 위의 먼지를/정성들여 정리한다"라는 표현을 누가 쉽게 할 수 있겠는가.